

하위문화에 나타난 대중음악과 패션의 기호적 해석

A semiolog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r music
and fashion style exposed in Subculture

주저자 : 김신우 (kim, shin-woo)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뷰티예술학부 전임강사

공동저자 : 전종찬 (jeon, jong-chan)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미디어디자인 콘텐츠학부 조교수

공동저자 : 김영인 (kim, young-in)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1. 서 론

2. 연구의 방법

3. 하위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장르별 음악과 관련된 패션 스타일

5. 음악과 패션의 기호적 접근

6. 결 론

참고 문헌

(要約)

현시대의 사회 문화적 기호로 대표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패션이다. 이는 패션이 전달하는 스타일이 단순한 양식이나 유행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소통의 코드이며 그 자체로서 하나의 미디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항상 패션에 자신의 힘을 과시해 왔고 패션 역시 음악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패션은 시각을 음악은 소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패션과 음악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패션과 음악은 모두 사회상을 투영하는 동시에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음악이 새로이 변화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청년문화가 창출되어 왔으며 이 문화들은 뚜렷한 패션 경향을 이루며 확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화 집단에서 그들만의 정체성과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패션 스타일과 음악 유형들 간의 관련성을 기호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청년문화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대중 음악과 패션 스타일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이 하위문화는 자신의 삶의 조건이 강제하는 모순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이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써 표상행위가 되고 그들 스스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이나 의복 스타일을 개발하여 상징적 저항의 기의를 표출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하위문화에 있어서 대중음악과 패션스타일과의 관계는 내면의 가치를 기호화한 상동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Fashion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which represents the contemporary sociocultural signifiant. A style that a certain stream of fashion brings is not just limited in fragmentary tendencies and fads. That can be a code to communicate and function as a medium in itself.

Music has been displaying it's power to fashion while fashion has been exercising it's influence over the music. There i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fashion in terms of expressing our images of the world: fashion delivers them through visuality and music does it by sound.

Both fashion and music are reflecting our society as well as they are influencing on sociocultural aspects generally. Whenever music has been changed new youth culture has been made and this culture has been expanded with forming some distinct fashion trends.

The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the relations between pop music and fashion styles which are occupying positions firmly on the bases of youth culture through analys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fashion styles and music genres which are used in sub-culture groups to express their own identities and consciousness from a point of semiotics.

In conclusion, subculture is the exit of their escaping from the compelling inconsistency cause by the condition of people's life and the way for them to solve through cultural sublimating for themselves. People come up with distinctive style of music and fashion to express their resistant signifie in their symbolic way. In addition, a particular music trend has much to do with a contemporary fashion sty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fashion, there have been the subtle mechanism to boost and influence and some crucial similarity each other to signify inner values of the times.

This study lets us realize that fashion is not only a popular style of clothes, hair, etc. at a particular time or place but also a medium to communicate and to guarantee polysemous identity by functioning as a flexible tool to exchange contemporary sociocultural meanings.

(keyword)

subculture, fashion, music, relationship

1. 서론

현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기호로 대표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패션이다. 이는 패션이 전달하는 스타일이 단순한 양식이나 유행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소통의 코드이며 그 자체로서 하나의 미디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항상 패션에 자신의 힘을 과시해왔고 마찬가지로 패션 역시 음악에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패션은 시각을, 음악은 소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패션과 음악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패션과 음악은 사회상을 투영하는 동시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음악이 새로이 변천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청년문화가 창출되어 왔으며 이 문화들은 뚜렷한 패션 경향을 이루며 확산되었다. 이러한 음악들이 변화할 때마다 창출된 새로운 청년문화는 주류 문화에서 탈피한 하위문화였으며 이 하위문화는 일반적 주류패션이 아닌 스트리트 스타일을 창출해 내고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하위문화 스타일은 일시적인 문화현상을 넘어서 매스 미디어에 의해 대중문화로 상향전파 되고 우리의 취향, 라이프스타일, 패션, 음악, 그리고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위문화 스타일은 다수에 의해 획일적으로 추종되는 대중유행 스타일과는 달리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패션의 미의식을 자극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하여 왔다²⁾.

이러한 맥락에서 하위문화 스타일의 주된 발생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음악의 변화, 발전을 살펴보고 또 그에 따라 패션 스타일은 어떻게 변천하게 되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화 집단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션 스타일과 음악의 유형간의 관련성을 기호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청년문화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대중음악과 패션 스타일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는 하위문화 스타일이 일련의 가치와 함께 표현화 된 시기를 1950년대로 보고 당시 수반된 패션 스타일인 락커빌리 스타일(Rockabilly style)에서부터 1960년대 유행했던 록큰롤(Rock'n roll)과 락커스 스타일(Rockers style), 1970년대의 헤비메탈(Heavy metal)과 헤드뱅어 스타일(Head banger style), 그램 락(Gram rack)과 그램 룩(Gram look), 그리고 레게음악(Reggae music)과 레게 스타일(Reggae style), 1970년대 말 펑크 락(Punk rock)과 펑크 룩(Punk look), 그리고 1980년대 그룬지 락(Grung rock)과 그룬지 룩(Grung look), 1990년대 힙합(Hip hop)과 힙합스타일(Hip hop style)에 연계되어 등장한 음악의 장르와 패션 스타일로 범위를 한정한다.

① 1) 정이진, 정홍숙, 김선화, 락 음악의 발전에 따른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과 변천, 복식, 제52호, 5권, 173, (2002)

② 2) 임은혁, 21세기 전환기 하이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복식, 53권, 2호, 72, (2003)

또한 비언어적 이미지 영역의 의사소통 체계에 관한 퍼스(charles S. Peirce)의 기호 이론에 입각하여 기호학적 관점을 음악과 복식 이미지 분석에 적용하였다.

퍼스는 기호의 9가지 범주³⁾ 중 도상기호(iconic sign), 지표기호(indexical sign), 상징기호(symbolic sign)로 구성된 기호의 삼분법이 가장 기본적인 분류임을 증명하였고 의미론에 속하는 이 삼분법이 퍼스의 분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다.

퍼스에 의하면 도상은 그것을 표시하는 대상의 특성을 유지하는 기호이다. 기호를 도상으로 기술할 때 대상과 밀접하거나 동일한 유사성을 지속시킨 회화나 사진과 같은 시각적 기호로 예를 들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그림 도표, 다이어그램(diagram), 도해(maps)와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의 대상들과 유사한 시각 기호들로 제안하였다. 또한 도상적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 관련을 맺는 기호의 성격이다. 복식의 예를 들면 퇴폐적이며 허무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악마스런 문양이나 과감한 색채사용, 성적인 부분의 강조에서 퇴폐성에 대한 도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지표의 개념은 도상에 대한 대칭적 대비를 강조한다. 즉 도상은 대상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반면에 지표는 반드시 그 존재를 배경으로 삼아 작용한다. 퍼스의 기호이론에서 기호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에 현상적, 실존적 관계가 있는 기호가 지표이다. 복식의 예를 들면 티셔츠를 찢는 것,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과격한 문구 등은 그 자체에서 저항성에 대한 지표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 해석이란 기호와 대상 또는 의미간의 상호관계의 관습적 규칙이 되는 것이다. 퍼스의 용어에서 이 단어는 자의적이고 관례적인 사용 습관에 의해 의미화 하는 기호의 유형을 가리키는 의미를 갖는다. 이미지가 실제 세계에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상성, 그리고 이미지의 요소들간의 연속성과 그 요소들과 우리 자신들 간의 연속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지표성의 도움으로 상징성은 그 자의성에 의해 약호가 된다. 복식의 예를 들면 속옷의 겉옷화, 성적인 부분의 강조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역설적이고 은유적인 표현 속에서 퇴폐성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 상징적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의 기호가 도상, 지표 혹은 상징이 어느 정도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퍼스에 의하면 가장 훌륭한 기호란 이 3가지 요소 모두를 결합시킨 것이다.

이러한 퍼스의 기호적 해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적 고찰 방법을 사용했고 비계량적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산출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스트리트 스타일과 락음악 관련 논문, 서적을 통해 문헌조사를 하였고 시각적 자료는 서적, 패션 잡지에 나타난 관련 사진을 수집했으며 대중음악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사진에 있어 비디오 테이프, LPD, 인터넷 등에서 대중음악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3) 장애란, 복식에 나타난 건축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기호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9, (1995)

3. 하위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3-1. 하위문화

하위문화는 계급이나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범주 속에 속하면서 각기 다른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다양한 소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이다. 서구의 하위문화 연구는 이미 1920년대부터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와 범죄심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당시 청년 갱단의 일탈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에는 Albert Cohen이 50년대의 청소년 갱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배적인 가치들과 종속적 가치들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들을 추적하면서 하위문화를 하나의 종속문화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60-70년대에 Phil Cohen, John Clarke, Stuart Hall 등이 하위문화의 계급적이며 정치적이고 인종적인 문제에 대한 문화 사회적 혹은 민족지리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최근에 하위문화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문헌들을 정리한 독본 『The subculture Reader』가 Ken Gelber & Sarah Thornton을 통해 발간됨으로써 195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하위문화 연구의 다양한 경로들과 문제의식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위문화 개념의 핵심은 하위문화 집단 내의 다양한 하위집단이 드러내는 문화적 차별성에 있다. 이를테면, 노동자 계급문화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아래에는 연령층에 따라 청소년 노동집단, 성인 노동집단 등의 소집단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집단들은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성격을 공유하면서 세대간의 변수의 차이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위문화는 모문화와 구별되는 그들만의 동질적으로 만드는 두드러진 구조와 형태, 즉 행동, 가치관과 인공물의 사용, 지역 공간 등에서 차별화 되어 하위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하위문화는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하위집단의 의식적, 무의식적 대응이며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하위집단의 욕구와 원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하위문화는 지배문화의 지배 메커니즘과 하위집단의 저항 메커니즘이 일정한 수준에서 타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⁴⁾.

하위문화 집단의 분류는 그 집단의 특징적인 성향에 따라 여러 사회학자들에 의해 몇 가지의 분류가 제시되고 있다. 브레이크 엠(Brake. M)은 각각의 청소년 하위문화 집단을 그 구성원들의 가치관, 의미의 상징성, 태도 등에 따라 존경받는 모범집단, 이탈 청소년 집단, 문화적 반항집단, 정치 군사적 항거집단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잭 영(Jack Young)은 노동과 여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계급 문화론적 입장에서 노동계층의 탈선하는 하위문화집단과 중상층의 보헤미안 청소년 하위문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2. 하위문화 스타일의 유형과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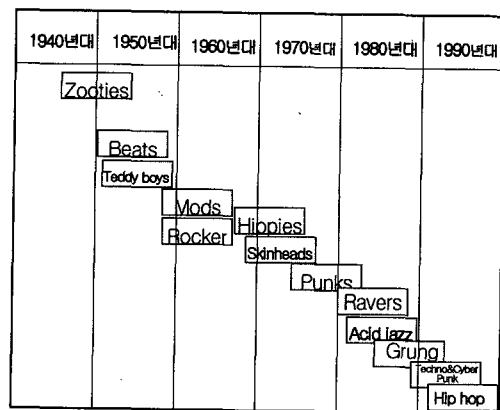
시몬 프리츠는 하위문화 스타일을 분석하기 쉬운 방식은 그것을 '거리문화(street culture)의 변용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거리문화의 주동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는 거리를 점령한 폭군이였다. 기성세대나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방식의 답습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그들만의 신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고방식 예술형태 표현문화, 패션문화, 음악

등 모든 것에 있어 그들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거리문화가 수반하여 생성된 스트리트 스타일은 1940년대 미국의 소외된 계층이었던 흑인 젊은이들에 의해 생겨난 줌프 스타일(zoot style)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줌프 슈트(zoot suit)와 화려한 액세서리를 남용하면서 정체성을 표방했다. 그러나 하위문화는 줌프 스타일에 반발하면서 발생한 검은 가죽재킷의 착용으로 대표되는 바이커(Biker), 비트(Beat)로 이어진다. 바이커는 안락한 생활을 거부하고 가죽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며 거리를 방황하던 청소년들로 1954년 영화 『The wild one』에서 말론 브란도(Marlon Brando)에 의해 완벽하게 표현되었다. 비트는 50년대 미국사회를 거부하는 작가와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언더그라운드(under ground) 운동을 배경으로 형성된 그룹이다.

하위문화 스타일은 1950년대 Teddy boys에 이르러 진정한 10대의 청소년들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Teddy boys는 영국의 미숙련된 노동자계층의 소비 지향적이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화이다. 이것은 60년대 모즈(Mods)나 록커(rocker)의 형성을 위한 요인을 제공해준다. 60년대 모즈는 카나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를 중심으로 발생한 소비지향적인 노동자계급의 자녀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카페나 클럽에서의 열정적인 생활로 그들의 낮은 지위와 업무를 거부하였는데 그들은 냉철한 사고의 소유자들이었다. 록커(Rocker)는 로큰롤(rock'n roll)의 인기와 함께 영국에서 발생하였는데 모즈와는 달리 소비 지향적 생활과 유행을 거부하고 공격적인 노동자 계층의 불량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댄스와 로큰롤에 심취하였다. 이후 하위문화는 히피(hippies) 문화와, 학교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의 저변을 돌고 있던 스킨헤드(skinhead)로 이어졌다. 그리

(표1) 하위문화 스타일의 변천과정



고 70년대 킹스로드(king's road)를 중심으로 실업자인 노동계층과 자녀로 좌절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하위문화 스타일 중 가장 과격한 그룹인 펑크(punk) 그룹으로 나타났고 80년대의 엘리트 주위에 반동으로 나타난 그런지(Grunge)로 이어졌다. 하위문화는 최근 90년대 컴퓨터 문화의 확산과 고도의 기술 성장 배경으로 나타난 테크노 사이버 펑크와 다이내믹한 춤과 흑인 음악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표현 방식인 랩으로 표현되는 힙합에 이르는 변천과정을 겪었다(표1).

④ 4) 김창남, 하위문화 집단의 대중문화 실천에 대한 연구-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1992)

하위문화 분석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젊은이들 집단의 가치와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을 기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악의 형태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는 그 스타일을 해독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딕 헵디지(Dick Hebdige)는 하위문화를 기호를 위한 투쟁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패션과 음악이었고 상업적으로 제공된 패션에 음악적 상징들을 수용했으므로 관련된 음악과 패션 스타일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4. 장르별 음악과 관련된 패션 스타일

장르별 음악과 그와 관련된 스타일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패션과 음악이 하위문화 젊은이들에게 자기표현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융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화 스타일이 표면화된 시기인 1950년대 이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에게는 여러 면에서 안정적 인 시기였다. 이 시기의 미국인들은 융성하고 번영했으며 국가적 이미지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이 한국전쟁에 연루되었던 것은 성공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즉 미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은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움을 이끌어온 나라의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했다. 또한 베이비붐과 더욱 팽배해진 주인의식이 함께 했던 번영의 시기로서 많은 미국인들은 경제적 자급능력이 크게 만족하고 있었고 예상했던 인플레이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산층의 미국인들은 번영을 느끼고 있었으나 점차 사치와 물질주의 만연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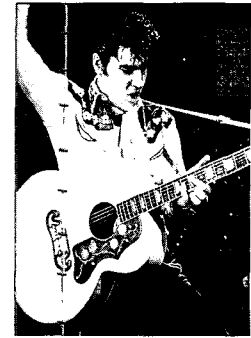
이 시기에 새롭게 부상하며 불만을 터뜨린 부류는 바로 비주류집단인 틴에이지러들과 흑인, 그리고 하층민이었다. 경제적 부흥을 누리던 1950년대 이르러 흑인들은 그들의 힘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1950년대의 젊은이들도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 을 시작했으며 그들은 부모 세대들이 만들어 낸 물리적 풍요와 더불어 세력을 확장시켜나갔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발달시킨 배경이 되었다.

4-1. 락커빌리와 락커빌리 스타일

락커빌리는 문자 그대로 락(Rock)과 히빌리(Hibilly), 즉 남부농장의 가난한 백인을 일컫는 속어의 합성어이다. 이 음악은 리듬앤 블루스에 컨트리 비트를 가미하여 강한 비트의 락으로 탄생된 것이다⁶⁾. 컨트리 음악은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점차 주류 대중음악에 식상해 있던 청중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컨트리도 점차 빨라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했으며 리듬 앤 블루스와의 교류도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락커빌리의 대표적 가수는 엘비스 프레슬리로[그림1] 락커빌리가 락큰롤로 꽃을 피우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격정적인 무대 매너로 힙을 흔들거나 머리, 손, 팔을 움직였다.

락커빌리와 컨트리 뮤직의 음악적 특징의 차이점은 컨트리

엔 웨스턴이 악기면에서 밴조, 만돌린, 하모니카, 기타가 주를 이룬 반면 락커빌리는 전기 기타, 리듬기타, 베이스로 구성되고 사운드 면에서도 거친 것이 특징이다. 창법은 성문 폐쇄음(입속으로 중얼거리는 소리), 딸국질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긴장감과 강약을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흑인 창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락커빌리는 흑인의 리듬 앤 블루스와 남부 백인의 재즈와 가스펠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의상 스타일은 단순히 흑인 재즈 뮤지션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고 나뉘는 대로 남부의 맨디로 화려하게 재창조하고 있다.



[그림1] 락커빌리 스타일

락커빌리 스타일은 2가지 스타일로 요약되는데 드레스 업 스타일과 드레스 다운 스타일이다. 드레스 업 스타일은[그림1] 백색과 연한 색조의 옷감에 다이아몬드와 자수 장식이 눈에 띄는 스티치, 부분적인 색상의 첨가, 화려한 옷술기, 화려한 색채와 극명한 색 대비, 재킷의 옷깃에 둘러있는 상당히 폭이 넓은 셔츠 칼라 등과 같은 과장된 모습이다. 바지 윗 부분은 헐렁한 반면 발목에 이르러서는 좁아지는 형태로 패그 톱(peg top) 스타일로 불리기도 하였다. 신발은 새하얀거나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색조로 이루어졌으며 푸른색 스웨이드로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 넓은 어깨의 주트 슈트(zoot suit), 광택 있는 삭 스킨 재킷도 크게 유행하였

다.[그림2]

반면 드레스 다운 스타일은 남아빠진 데님 작업복 재킷에 청바지와 부츠를 착용하는 것이 대표적 차립이다.

락커빌리 스타일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해야 했던 가난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빈곤과 육체적 노동에 찌들음을 화려한 옷차림을 통하여 은폐하고 싶어 했으며, 사회적인 성공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림2] 락커빌리 드레스 업 스타일

4.2. 락과 락커스 스타일

50년대 로큰롤의 폭발성으로부터 스탠더드 팝이 지배한 음악의 세계에 대한 반란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소리의 반란으로 음악적 충격을 넘어 사회적 충격을 야기했다. 락(rock)은 락커빌리(Rockabilly)가 록큰롤(Rock'n roll)로 표기되다가 락(Rock)으로 줄여진 전위음악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혁명이 영국 런던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바로 락 음악의 중심이 되었다.

락의 음악적 특징은 기존의 컨트리 앤 웨스턴에 리듬앤 블루스를 가미한 것으로 영국 출신 4인조 그룹 비틀즈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락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표현이나 가사 내용이 기존의 록큰롤 세대보다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가다듬어지게 되었다. 락커스들은 저돌적인 태도와 반항적인 아웃사이

④ 5) 장미선,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1994)

6) 임진모, 락, 그 폭발하는 젊음의 미학, 창공사, 16, (1995)

더로써 그들의 위치를 공표했다. 또한 장식을 강조하여 메탈 징을 박았고 특유한 문장은 더욱더 명백한 집단의 독자성을 창조했다.

락커스들은 헤어진 청바지를 입고 소매를 잘라 내거나 소매 아래가 헤진 데님 가죽 재킷을 입었다. 가죽이나 데님은 빈틈없이 사슬이나 장식 단추, 색칠한 기장이나 뱃지로 장식했다[그림3]. 장식으로는 59클럽 뱃지를[그림4] 포함하여 파시즘과 분리될 수 없는 철십자 훈장 등을 들 수 있다. 락커스의 가죽 재킷은 실용적이고 길긴 의복으로 사용된 반면 노동자 계층의 의상으로 반발의 상징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사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집단의 동질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죽 재킷 등판에 그려진 히글그림은 고속을 즐기는 오토바이 족에게 가장 공통적인 표시였고 다른 그림이나 징으로 박힌 장식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4.3. 헤비메탈과 헤드뱅어 스타일

헤비메탈의 기원은 보통 하드 락(Hard Rock)이라고 불리는 스타일이다.

온건한 프로그레시브 락(Progressive Rock)은 주로 중간 계급의 전유물이었다면 이 헤비메탈은 폭주와 비행을 일삼는 노동자층의 전유물이었다. 음악적 특징은 고음의 샤우트(shout) 창법에 큰 드럼, 거친 금속성 사운드가 특징이다. 대표적 뮤지션은 레드 제플린, 딥퍼플 등이 있다. 악기나 창법에 따라서 헤비메탈은 4가지 장르로 나뉜다.

헤비메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옷차림을 표방하는 이들을 헤드뱅어스라 부른다. 이 용어는 스테이지 위에서 머리를 위아래, 혹은 좌우로 흔드는 제스처를 일컫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헤드뱅어스의 긴 머리와 헤드뱅, 기타를 정신없이 연주하는 젊은이, 마이크를 자유롭게 흔드는 행동 등은 젊은이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헤드 뱅어스 의상의 특징은 초라하고 넓아 보이는 히피 스타일과 반짝거리는 비즈 장식의 사이키델릭, 그리고 번쩍이는 가죽재킷, 장식을 댄 가죽, 락커스 스타일이 혼합된 스타일이다. 머리 스타일은 히피의 영향으로 긴 머리이다. 이 긴 머



[그림3] 장식적인 락커스 스타일



[그림4] 락커스 59뱃지와 헤글그림



[그림5] 헤드뱅어스타일

리는 일명 푸들(Poodle)머리로 불렸다. 징 박은 가죽 재킷, 스파택스 진, 금속 장식, 뱃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고[그림5] 뱃의 표피와 표범무늬 문양의 액세서리는 1990년대 이후에 패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4.4. 글램락과 글램 스타일

영국에서 시도되었던 실험적인 장르의 음악인 글램에서 나온 명칭으로 대표적 뮤지션은 록 가수인 티 렉스(T.Rex), 마크 볼란(Marc Bolland), 데이비드 보워(David Bowie)이다. 그들의 양성적인 옷차림과 현란한 화장을 대중매체에서 '글래머러스'라고 표현하였던 것이 음악과 스타일의 대명사가 되었다. 글램의 음악 세계는 퇴폐적이면서 냉정하고 인위적인 도시감각이 짙게 베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패션인 글램 스타일의 근원은 1960년대의 활기찬 런던(Swing London)으로서, 특정한 정치적인 이슈의 표현이 아닌 개인적 정체감의 표현을 위해 스타일 적인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글램 스타일은 양성애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와 도발적인 화장, 과장한 색상의 머리 염색을 하였다. 복식은 화려하고 번쩍이는 공상과학영화 의상 같은 스타일을 선호했으며, 신발은 굽이 두꺼운 1960년대 풍 구두를 신었다. 글램의 스타일 적인 특징은 펑크, 뉴 로맨틱, 고트 등의 집단으로 계승되었다.

4.5. 레게음악과 레게스타일

레게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자메이카 말이다. 레게음악은 자메이카 민속 음악을 기원으로 한다. 1655년부터 300여 년 간 영국의 지배 하에 살았던 자메이카인들이 1930년대 멘토(mento)라는 자신들의 고유의 음악의 장르를 만들었다. 이 멘토는 1940, 50년대에는 스카(ska)라는 음악으로 발전했다. 1966년에는 스카 리듬을 사용한 록 스테디(rock steady)라는 장르가 생겨났으며 그 후 그것이 레게로 변화하여 1968년은 레게(Reggae)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레게란 용어가 레코드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69년 메이탈스(Maytals)의 'Do the reggae'라는 곡부터이다. 그 후 1972년부터 레게 리듬에 매력을 느낀 미국과 영국의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음악에 레게음악을 도입하게 되는데, 레게음악의 황제는 밥 말리(Bob Marley)이다. 그는 길게 끈 머리와 자연섬유의 옷을 입고 레게음악을 노래하였는데 이는 당시 영국의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레게음악의 진정한 힘은 그 외형에 숨어있는 메시지에 있다. 거기에는 경쾌한 비트와는 다르게 자메이카 흑인들이 겪는 인종차별과 자본주의의 억압적 정치에 대한 반발, 흑인 의식의 고취 등과 같은 무거운 메시지를 준다. 밥 말리는 대다수의 인구가 흑인이면서 인구의 10%에 못 미치는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자메이카의 실정을 고발하기 위해 레게음악을 '반역음악'이라 일컬어 저항의 수단으로 삼았다.

레게음악이 영국과 미국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 1972년부터 계속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많은 음악가들이 레게음악의 비트를 사용한 레코드를 만들었는데 조니 내쉬(Jonny Nash)의 'I Can see Clearly'와 스테플 싱어(The Staple Singer)의 'I'll Take You There' 등이 포함된다.

7) 김수련, 염혜정, 레게패션의 디자인 연구, 복식, 50권, 3호, 135, (2000)

또한 레게 가수 지미 클리프(Jimmy Cliff)가 주연한 영화 'Harder They Come'이 미국에 상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영화의 영향은 1978년 Bob Marley & The Wailers가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하여 레게음악을 보다 폭넓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레게음악의 열풍은 한층 가속화되어 1980년에는 Huruse & The News, UB40, Big Mountain 등의 가수들이 레게 음악을 선보여 인기를 얻었다.



[그림] 드레드 락스 헤어 스타일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아프리카 패션은 흑인 음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블루스, 재즈, 소울 그리고 레게, 랩 음악으로 변화되어 왔고 그 중에서 레게 음악은 인종적, 계급적 모순이 중첩된 흑인들의 고통과 경험이 반영된 음악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백인 사회의 청소년 하위문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었다.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 레게 스타일은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라스타파리안 스타일(Rastafarians Style)로 대도시의 슬럼가에 흩어져 사는 흑인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약속의 땅이자 시온의 꿈이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아프리카의 고대 문명,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영감을 찾았다. 그리고 공업화와 인공적인 탐욕 속에서 현대 세계가 오랫동안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그들의 자연을 재발견하고 평화적으로 인내하는 생활 방식을 채택하였다.

라스타파리안의 색은 적색, 황색, 녹색이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미래의 통일 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국기 색을 활용한 것이다. 적색은 노예의 피를, 황색은 금으로 아프리카의 부를 상징하며, 녹색은 아프리카 고유의 색으로 푸른 초원을 의미한다. 머리스타일은 대표적으로 드레드락스(dread-locks) 헤어(hair)를 함으로써 [그림 6] 라스타파리안즘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는 라거머핀과 비행라 스타일(Raggamuffins & Bhangra style)이다. 1980년대 소비문화를 폭력적이고 개인주의를 찬양하며 향락과 섹스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세 번째는 힙합 레게 스타일(Hip-hop Reggae Style)이다. 199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폐지의 상징인 첫 흑인 대통령 만델라의 취임은 음악이나 패션 등의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1994년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레게음악이 댄스 음악으로 급부상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복식의 유행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힙합 레게 스타일이 널리 확산되었다.

4.5. 펑크 락과 펑크 스타일

펑크가 70년대 중반에 등장하게 된 것은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실직한 상태이고 성취되는 일이 없으며 기성사회에 반항하였기 때문이다.

60년대에 유스퀘이크⁸⁾를 주도한 턴에이지 그룹이 생겨난

것을 보면 복식과 음악은 서로 융합되어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펑크 락과 펑크 록은 멋진 등장을 할 수 있었다. 대중들은 상업적 흐름에서 탈출, 지루함에 대한 파격을 갈구하던 차에 펑크 록이 변화의 실마리를 던져주었다.⁹⁾

록이란 '젊음의 폭발적 저항의 미학'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정의에는 록과 관련된 네 가지 주요 개념인 청춘성, 폭발성, 저항성 그리고 예술성이 함축되어 있다. 청춘성은 특히 청년 문화의 음악임을 가리키며 폭발성의 개념은 청춘성과 직결되어 70년대 후반 영국을 강타한 펑크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펑크세대 젊은이들은 당시 록계를 주름 잡고 있던 '록 엘리트'들에게 반기를 들어 기타 솔로를 빼고 전기톱 기타의 소음만을 친 그들의 음악을 통해 본질적으로 젊음의 평음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폭발성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펑크 록은 저항의식의 사운드와 원시적 아우성을 동원한 공격성으로 기존의 사회에 충격을 가했고 자신들의 반항이 결코 자본주의의 사회를 강화시켜주는 주변인들의 반란에 머물지 않음을 경고했다. 적어도 그것은 음악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섹스 피스톨스(Sex pistols)와 클래시(clash) 등 펑크 밴드들은 이러한 예술성의 치중과 미학적 경향에 반기를 들고 반 미학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반 미학이라는 미학을 수립하는 역할을 실천했다. 음악적인 면에서 펑크밴드는 기타솔로를 없애 버리고 3코드만으로 모든 음악이 가능하다는 '최소주의'를 실천했다. 그들이 이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anyone can do it), '스스로 하라(do it yourself)'는 평등과 독립의 이데올로기를 확립했다. 따라서 펑크는 '록의 폭발성'을 복원함과 더불어 록 특유의 저항 문화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록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르로 취급되고 있다. 섹스 피스톨스는 의도적으로 영국의 왕실을 비꼬았다. 동료밴드인 클래시는 "미국이 지긋지긋하다"고 소리쳤다. 클래시는 섹스 피스톨스의 허무주의 굴레를 벗고 영국에 만연되어 있던 파시즘과 인종차별을 공격하는 등 저항 영역을 확대했다.

음악적인 특징을 수반한 펑크 패션은 1976년 영국의 록큰롤 그룹의 무대의상에서 시작되었다. 펑크의 복식은 단정하고 이롭다워야 한다는 기존의 미의식을 전적으로 부정하며 이상한 것을 자연스럽게 하



[그림 7] 펑크 헤어스타일

고자하는 스트리트 패션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펑크 족들은 기묘한 플라스틱(Plastic peculiars)이라고 불리는 것같이 고무나 플라스틱제의 팬츠,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플라스틱과 그물망으로 된 셔츠, 멜빵바지, 모조 표범가죽, 당돌한 구호가 프

8) Youthquake: 60, 70년대 사회체제를 뒤흔든 젊은이 문화와 가치관을 앞세운 운동

9) 장애란, 펑크 록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호, 198, (2003)

린트된 티셔츠 등을 일부러 무질서하게 코디 시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복식 모두에 나타났고 소매나 바지의 무릎 부분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너털너털하게 찢기도 하여 파괴적이고 무질서하며 인간적 정서가 없어 보이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헤어스타일은 매우 특색이 있었는데 모히칸족의 헤어스타일과 비비코아 폭발하는 듯한 모양의 스파이크 헤어스타일이 있었다. 메이크업은 눈언저리에 검은 웅덩이 모양으로 선을 두르고 눈초리를 날카롭게 그리는



[그림7] 펑크스타일 패션

드라큘라형의 화장, 검은 점을 찍거나 입술을 검게 칠하기도 하며 외관상으로 공격성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보였다.

액세서리도 면도날, 낡은 볼트, 반지, 옷핀, 쇠사슬 등 실생활의 사소한 물건들을 무질서하게 사용하였으며 뾰족한 금속 정들이 박혀 있는 가죽 팔찌, 장갑, 벨트를 사용하였다[그림8]. 그러한 배경 하에 말콤 맥라렌(Malcolm McLaren)과 비비안 웨이스트우드 그리고 그들의 삶은 펑크 록의 메카로 군림했으며 섹스 피스톨스와 클래식 같은 펑크 락 밴드들의 근거지가 되었다¹⁰⁾. 그들의 옷은 사도다조키스트(Sado-Masochist)¹¹⁾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양성이 교차되었고 그 당시 반역의 상징으로 받아들여던 타탄(tartan)체크의 킬트(kilt)를 입기도 했다. 그들의 패션은 무정부주의의 이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4-7. 그런지 락과 그런지 스타일

그런지 락은 1980년대 후반 시애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펑크(punk)와 히피(Hippie)를 함께 믹스한 음악이며 미국 북서부 해안의 문화를 종합한 것이다. 선두 주창자는 중류의 백인 청년으로 시끄러운 즉흥 음악과 기타 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대표적 밴드로는 니르바나(Nirvana), 펄잼(Pearl Jam), 머드 허니(Mud honey), 사운드 가든(Sound garden) 등의 그룹으로 1990년대 1분기 동안 대서양의 양쪽에서 음악 차트를 석권했다. 그들은 X세대의 실종이라는 주제로 그들의 독자성과 음악을 제공하였다.

니르바나(Nirvana)의 리드 싱어인 코베인(cobain)의 음악은 상처입고 고생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남권주의를 잘 표현하였다. 고통스럽고 공격당하기 쉬운 성의 주체성에 대한 그의 몰입은 그의 외양에 잘 표현되었다.

스타일로서 그런지(Grunge)는 그런기(Grungy)를 변형하여 만들어낸 미국 청소년층의 신조어로 뒤틀린 더럽고 혐오감을 주는 지저분한 것을 의미한다. 현실에 냉소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을 낳은 그런지는 히피문화의 이슈와 같은 히피 패션의

부활을 가져왔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한정된 자원을 중시하는 재활용(recycling) 개념의 확산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다양하게 레이어링(layering) 시킨 것이 특징이다. 소재 선택에서도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는 가공되지 않은 듯한 천연소재가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이질적인 소재의 미스앤 매치(mix&match)와 프린트 물을 변화 있게 사용하였다. 그런지 패션은 세기말의 패션 전환기를 향한 하위문화 패션의 하나로서 하류 계층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하이 패션에 깊숙이 침투한 90년대 전반의 획기적인 패션 스타일로 기록된다.

4-8. 힙합과 힙합스타일

1980년대 미국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다이내믹한 춤과 음악의 총칭인 힙합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가장 주목받는 유형의 문화로 힙합뮤직, 힙합댄스, 힙합패션, 힙합스타일로 1990년대의 문화전반을 이끌었다. 또한 힙합은 1970년대 후반 뉴욕 할렘가에 거주하는 흑인이나 스페인계 청소년들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문화운동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므로 힙합을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문화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힙(hip)합(hop)의 뜻은 움직이는 엉덩이, 다시 말해 약동하는 육체를 뜻하며 문화적으로는 흑인들의 제반 생활양식과 정서를 포함한다¹²⁾. 음악에 있어서 힙합은 비트가 빠른 리듬에 맞춰 자기 생각이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랩, 랩에 맞춰 곡에 같은 춤을 추는 브레이크 댄스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힙합은 랩의 효과음으로 사용되던 LP판을 손으로 앞뒤로 움직여 나오는 잡음을 타악기 소리처럼 사용하는 스크래치, 다채로운 음원을 교묘하게 믹싱 조작으로 재구성하는 브레이크 믹스 등의 독특한 음향 효과로 주목을 끌었다. 이 기법은 테크놀러지의 급속한 발전으로 힙합 운동 출신의 사운드 크리에이터(creator)들을 등장시켰고 이들이 만들어낸 사운드는 1980년대에 미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경향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그 이후로 힙합은 주로 이러한 사운드 기법을 재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흑인 음악가 퀸시 존스는 '현대 흑인 음악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표현방식'이라고 랩을 평가하고 있다¹³⁾.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힙합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보다 자유스럽고 즉흥적인 형태의 패션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힙합 스타일은 할렘 빈민가 노동자 계층 2세대들이 옷 살 돈이 없어서 아버지 옷을 물려 입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할렘에서 자란 아이들이 권총과 총탄, 마약 등을 많이 소지하기 위해 일부러 통 넓은 바지와 많은 주머니를 원하게 되면서 점점 길거리의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⁴⁾. 또한 감방에서 착용하는 죄수복은 사이즈가 개인에게 맞추기 어려웠고 벨트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러한 옷의 느낌을 일상복에서 질질 끌리는 헐렁하고 큰 바지로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의견은 80년대 말 미국시장에 많은 브랜드들이

10) 장애란, 앞글, 복식, 39호, 201

11) 가학, 피혁성의 변태 성욕자.

12) 이지현, 정은숙, 힙합 패션의 유행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4호, 92, (2000)

13) Naver 백과 사전 <http://100.naver.com>

14) 이지현, 정은숙, 위의 책, 93

출현했고 세일이 성행해 90% 세일까지 등장해 매장에서 상품이 거의 빠지고 나면 흑인들이 남아있는 큰 옷들을 사서 헐렁한 상태로 입은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의견이다. 이와 같이 힙합은 음악이나 미술뿐만 아니라 패션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대중패션 뿐만 아니라 하이패션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사진]

힙합 패션의 유행요인은 3가지고 볼 수 있는데 대중매체의 영향과 대중음악스타의 패션 영향과 스포츠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15].



[사진9] 힙합 패션

5. 음악과 패션의 기호학적 접근

딕 헵디지는 영국에서의 젊은이들의 하위문화는 명백하게 계급을 의식하고 있었고 또래 집단의 길거리 규범들뿐 아니라 “기호를 위한 투쟁(a struggle for the sign)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하위문화는 계급과 젊음의 이데올로기 상에 작용하고 주체, 즉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지배적인 정의에 반응한다고 하였다. 젊은이 집단들 자체가 ‘시대의 기호’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집단들 자체가 계급과 성과 연령에 대해서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자면 스킨 헤드족은 만화에 나오는 톱텐 노동자의 외양을 띠고 있다. 즉 어리석음의 표시로 면도날로 밀은 머리, 고된 일의 표시로 일할 때 신는 장화, 야수성의 표시로 꼴사나운 몸동작, 위협의 표시로 말없고 무뚝뚝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해독해 보고자 한다.

락커빌리 음악에서는 전기기타와 리듬 기타, 베이스를 통한 거친 소음과 같은 음의 지표로 락커빌리들의 음악적 반란을 상징하고 있으며 중얼거리는 듯한 성문 폐쇄음과 딸꾹질 법을 통하여 긴장감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며 도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패션 스타일은 2가지로 화려한 색채와 자수, 장식적인 옷솔기, 극명한 색채 대비, 넓은 셔츠 칼러로 대변되는 쥘트 슈트와 같은 드레스 업 스타일과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옷차림이었던 낡아빠진 태닝과 지저분한 부츠로 대변되는 드레스다운 스타일로 나타남으로써 빈곤과 노동, 반란, 과장됨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락커빌리들은 드레스 업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화려한 남부의 댄디들을 모방함으로써 그들의

[표2] 락커빌리와 락커빌리 스타일의 기호적 해석

음악		패션			
기표	기의	기의	기표	도상	
전기기타 리듬기타 베이스의 소음	반란	공통기의 긴장 반란	과장 긴장 빈곤 노동 반란	화려한 자수 넓은 셔츠 칼라 극명한 색 대비 낡아빠진 태닝 지저분한 부츠	

내재된 빈곤함을 감추는 과시적인 그들의 내면의 기의를 표출하고 있다. 그들 음악과 패션의 지표로 통한 기의 중 공통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긴장과 반란으로 요약할 수 있다[표2].

락은 음악에서는 거친 사운드로 내면의 거칠고 매마른 정서를 표출하고 있으며 폭발하는 듯한 음으로 충격, 반항의 지표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컨트리 뮤직에 리듬엔 블루스를 가미하여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승화된 사운드로 폭발하는 젊음에 대한 음의 지표적 해석도 가능하다. 패션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메탈 정은 거칠음을 상징하며 찢어진 청바지, 가죽 재킷은 어디서든지 입기 편한 옷차림의 실용성과 반항이라는 이중적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슬은 반항의 의미로 도상적 해석을 할 수 있으며 해골그림, 59클럽 뱃지 등의 도상을 통해 스타일에 대한 독자성이라는 도상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음악과 패션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지표성의 도움을 통해 추상적 관념 속의 기호의 내용이 되는 공통적인 기의는 음악에 있어서는 거친 사운드로 거칠음, 그리고 음의 세계에 대한 반항과 독자성의 확립으로 패션스타일은 기존의 미의식에 대한 반항과 거칠음,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만든 스타일에 있어서 독자성으로 상징되는 약호가 될 수 있다[표3].

[표3] 헤비메탈과 헤드뱅어스 스타일의 기호적 해석


음악		패션			
기표	기의	기의	기표	도상	
고음의 샤우트 창법 거친 금속성 사운드 폭발하는 듯한 큰 드럼 소리 마이크, 머리핀 흔드는 잼스처	폭주, 비행 과격함 긴장 자유 젊음 과격함	공통기의 자유 젊음 과격함	원각 젊음 과격함 실용성 독자성 자유	번쩍이는 비즈 장식 가죽 재킷 금속 장식 스킨택스 뱃지 긴머리	

헤비메탈 음악에서 들려지는 고음의 샤우트 창법은 폭주 비행을 상징하며 거친 금속성 사운드는 과격함을, 큰 드럼 소리는 긴장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노래 할 때 스테이지 위에서 머리를 위아래 좌우로 흔드는 헤드빙(head bing), 기타를 정신없이 연주하는 모습, 마이크를 자유롭게 흔드는 행동 등으로 자유, 젊음의 상징적 해석이 가능하다. 헤비메탈을 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차림을 표방하는 헤드 뱅어스(head bangers)는 긴 머리, 낡고 초라한 히피 스타일, 그리고 번쩍거리는 비즈 장식의 사이키델릭한 분위기, 가죽재킷 등으로 혼합된 스타일과 푸들이라고 불리는 긴 머리 등의 도상을 통해 자유와 젊음 그리고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는 대상을 통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금속장식을 통해 과격함을 상징하는 도상적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음악과 패션에 있어서 공통되는 상징적 기의는 자유와 젊음, 그리고

15) 이지현, 정은숙, 앞의 책, 96


패션스타일에 있어서의 금속 장식과 음에 있어서의 금속성의 거친 사운드로 과격함의 상징적 해석을 유추할 수 있다[표4].

[표4] 락과 락스 스타일의 기호적 해석

음악		패션		
기표	기의	기의	기표	도상
거칠은 사운드	기침음	실용성	참바지, 가죽 재킷	
폭발하는 듯한 음	충격 반향	반향	시슬	
세련되고 예술적인 표현과 가사	독자성	거칠음	매탈장	
		독자성	해골그림	

반면 글램은 퇴폐적인 목소리와 인위적인 사운드로 자극적인 무대 매너들의 기표를 통하여 퇴폐적, 냉소적이라는 기의를 나타내며 그것이 상호작용하여 기호로써 대상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패션스타일에 있어서는 양성적인 옷차림, 현란한 화장, 괴상한 머리 염색들의 도상으로 대상의 정체감과 퇴폐적, 도시적인 패션 감각들의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음악과 패션에서 공통적인 기의는 성에 대한 정체성, 퇴폐성으로 나타남으로써 도상, 지표, 상징으로 구성되는 3가지 요소를 결합시킨 기호로써 표상의 세계에 편입되게 되었다[표5].


[표5] 글램락과 글램록의 기호적 해석

음악		패션		
기표	기의	기의	기표	도상
퇴폐적인 목소리	퇴폐성	성 정체성	양성적인 옷차림	
자극적인 무대 매너	성 정체성	도사적인 감각	현란한 화장	
인위적인 사운드	냉소적	퇴폐성	괴상한 머리 염색	

한편 레게는 소울(soul) 음악을 결합한 경쾌한 비트의 사운드이지만 그러한 지표를 운반하는 기의는 흑인들이 겪는 인종 차별에 대한 고통과 자본주의의 억압적 정치에 대한 반발로 흑인의 저항의식과 인종차별에 대한 고통과 자본주의의 억압적 정체에 대한 반발로 흑인의 저항의식과 인종차별을 표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외형으로 나타나는 경쾌한 비트의 기표와 추상적인 관념, 정신적 의미의 기호의 내용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것이 상호작용 하여 기호로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션스타일에 있어서 보여지는 기표는 길게 끈 머리, 천연 섬유 의 옷, 아프리카 원주민의 민속복, 검은색 피부, 드레드락스(dread-locks), 다쉬키(dashiki)등이 대상과 동일한 유사성을 지속시킨 사진의 시각적 기호로 공업화와 인간적 탐욕 속에서 그들의 고향인 아프리카의 자연을 동경함으로써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기의를 표출하여 억압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레게음악과 레게 패션스타일에 있어서 보여지는 기표를 통하여 상호 관련된 공통 기의로 표출된 것은 흑인의 저항의식과 인종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상징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표6].


또한 펑크는 음악에 원시적인 아우성으로 들리는 소리와 사운드 창법으로 과격함을 표현했으며 전기기타의 소음으로

[표6] 레게음악과 레게 스타일의 기호적 해석


음악		패션		
기표	기의	기의	기표	도상
강한 비트	흑인의 저항 의식	흑인의 저항의식	길게 끈 머리	
소울뮤직의 결합	아프리카 로의 복귀	자연적	천연 섬유의 옷	
		원시적	아프리카 원주민 민속복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기타 솔로를 없애버리고 3단 코드만으로 모든 음악이 가능하다는 음악에 있어서 최소주의를 낳았으며 원시적인 아우성 같은 목소리로 기존 사회에 대하여 충격을 주었다. 도상을 통한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는 고무, 플라스틱 팬츠로 인공적이라는 지표적 해석이 가능하며 미니스커트를 입음으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모조 표범 가죽의 문양을 사용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야수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모히칸족의 닭벼슬 머리 등으로 공격성을 표현했으며 면도날과 같은 공격적 오브제로 장식함으로써 파괴적인 비인간성과 반미학을 추구함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펑크락과 펑크룩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기표는 과격함, 공격성, 미니멀리즘이라는 공통 의미의 운반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표7].

[표7] 펑크 락과 펑크 룩의 기호적 해석

음악		패션		
기표	기의	기의	기표	도상
사운드 창법	과격함	인공적	고무, 플라스틱 팬츠	
전기기타	공격성	미니멀리즘	미니스커트	
3단코드	미니멀리즘	퇴폐성	모조 표범가죽	
원시적 아우성	충격	공격성	모히칸의 닭벼슬 머리	

[표8] 그런지락과 그런지룩의 기호적 해석


음악		패션		
기표	기의	기의	기표	도상
시끄러운 기타소리	혼란	냉소적	더럽고 혐오감을 주는 옷차림	
폭발하는 음	충격	독자성	이질적인 소재의	
즉흥적인 음악	독자성	혼란	미스매치	
펑크와 히피를 믹스한 음악				

반면 그런지는 펑크와 히피를 함께 믹스한 음악으로 중류층의 백인 청년들의 시끄러운 기타소리, 폭발하는 사운드, 즉흥적인 음악으로 X세대의 실존이라는 기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패션스타일로서의 그런지는 더럽고 혐오감을 주는 옷차림과 여러 가지 아이템을 겹쳐 입은 레이어링,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는 천연소재의 사용과 이질적인 소재의 믹스매치의 기표를 통하여 냉소적이며 반항적인 이미지를 표출하여 그들의 패션을 하위문화 패션의 하나의 기호로 정착하게 만들었다. 공통적 기의는 혼란과 독자적이라는 상징적 해석을 할 수 있

다[표8].

마지막으로 힙합은 음악에 있어서는 강한 랩과 격렬한 춤 동작으로 빈민가 계층이었음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당당함과 반항성을 표현했고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는 팬티 밑에 걸쳐 입은 바지, 헐렁하고 병병한 스타일 등으로 편안함과 동시에 구제품을 입은 듯한 것을 드러내는 빈민 계층의 소외감을 당당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과격함을 같이 표현하고 있다[표9]

⑤ [표]의 힙합과 힙합스타일의 기호적 해석

음악		패션		
기표	기의	기표	기의	도상
강한랩	반항	당당함	풍이 넓은바지	
격렬한춤동작	당당함	빈민가	운동복, 배기팬츠	
		반항	두건	

6.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패션은 단순히 입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의미작용을 통해 다의성을 갖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패션과 음악은 의사소통 매체로서 의미전달이 가능하다는 공유성이 있음을 기호학적인 관점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락커빌리 음악과 락커빌리 스타일은 긴장, 반란, 빈곤함, 과시적 욕망을 상징하며 록큰롤 음악과 락커스 스타일은 거친 사운드와 찢어진 청바지, 가죽 재킷 등의 기표를 통하여 반란과 이중성을 의미하는 기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록의 각별함을 저항의 기의를 표출하는 것으로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또한 헤비메탈 음악과 해드뱅어 스타일은 샤프트 창법과 금속성 사운드, 징 박은 가죽재킷을 통하여 자유와 젊음을 표출하고 있다.

반면 글램락과 글램록은 내면의 정체성의 한계를 드러내며 장식에 치중하여 성별을 초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여 퇴폐적 이미지의 기의를 전달했다. 그리고 레게음악과 레게패션은 인종차별에 대한 부당함과 흑인의 저항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록의 폭발성을 복원함과 동시에 록 특유의 저항 문화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로 취급되는 펑크 락과 펑크 록은 반항, 폭발성, 비인간적 반미학을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반미학이라는 미학을 수립하는 역설을 실천했다.

80년대 말 진보적이고 진위적인 폭발성을 복원했던 그런지 락과 그런지록은 즉흥적인 음악으로 X세대의 실종과 독자성을 상징하며 냉소적인 개인주의를 표방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힙합은 중얼거리는 듯한 랩과 격렬한 춤동작으로 빈민 계층의 반항심을 표현했고, 소외감을 당당하게 드러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은 걷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는 것이 그들의 지배문화양식과 다르고 같은 소속원들은 일, 의복, 행동, 여가추구 등의 라이프스타일에 있어 같은 문화적 반응과 상징적 해결을 통해 그들이 하위문화 그룹임을 시사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그들의 음악은 생성 이래 새로운 형태로 변화, 발전해 왔으며 이 때마다 청소년 하위문화에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스타일을 수반해 왔다.

둘째, 이러한 청소년 하위문화는 자신의 삶의 조건이 강제하는 모순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이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써 표상행위가 되고 그들 스스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이나 의복 스타일을 개발하여 상징적 저항의 기의를 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저항의 기의는 규제 혹은 지배에 대한 인간적 자유와 창조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하위문화에 있어서 대중음악과 패션스타일과의 관계는 내면의 가치를 기호화한 상동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영미권에서 발생한 음악의 발전에 따른 의상 스타일의 특징을 기호적으로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우리나라 대중음악과 패션 스타일의 연구가 이루어져서 음악과 패션스타일의 기호적 연구가 영미권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확장된 범위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정미진, 정홍숙, 김선화, 락음악의 발전에 따른 스트리트 스타일의 발생과 변천, 복식, 제52호, 5권, (2002)
- 임은혁, 21세기 전환기 하이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복식, 53권, 2호, (2003)
- 김창남, 하위문화 집단의 대중문화 실천에 대한 연구-대중음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은경, 기호학적 접근에 의한 20세기 패션의 특성 고찰과 복식디자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2)
- 장애란, 복식에 나타난 건축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기호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1995)
- 장미선,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임진모, 락, 그 폭발하는 젊음의 미학, 창공사, (1995)
- 김수련, 엽혜정, 레게패션의 디자인 연구, 복식, 50호, 3호, (2000)
- 장애란, 핑크 록이 반영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기호적 해석, 복식, 39호, (2003)
- 이지현, 정은숙, 힙합 패션의 유행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4호, (2000)
- Naver 백과 사전 <http://100.naver.com>
- 엄소희,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강혜선,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창남,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5)
- 송원길, 컨트리 음악의 역사, 서울: 세광, (1989)
- 서동진, Rock, 젊음의 반란, 서울: 새길, (1993)
- 딕 헤디지, 이동연 역,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2)
- 임진모, Pop 시대를 빛낸 정상의 앨범, 서울:창공사 (1994)
- 한완상, 현대사회와 청년문화, 서울:입문사, (1973)
- Simon Firth저 권영성, 김공수 공역, Rock 음악의 사회학-사운드의 힘, 서울: 한나래, (1994)
- Ted Polhemus, Street Style, London:Thames & Hudson, (1994)
- Polly Rowell & Lucy Peel, 50's & 60's Style, London: The Apple press, (1988)
- Barnes Richard, Mods, London: Plexus, (1991)
- Amy de la haye, Fashion source book, The Wellelet Press, (1988)
- David Band저,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1986)
- Steven Cononor저, 김성신, 정정호 역, Post Modernist Culture, 서울: 한신 문화사, (1993)
- 엄소희,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정해순, 패션에 미친 Pop Art의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임선경, Pop Music 가수 Fashion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정식,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하위문화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